요약

비영리스타트업의 활성화 위해 생태계 조성 인건비 지원 등으로 청년일자리 안정적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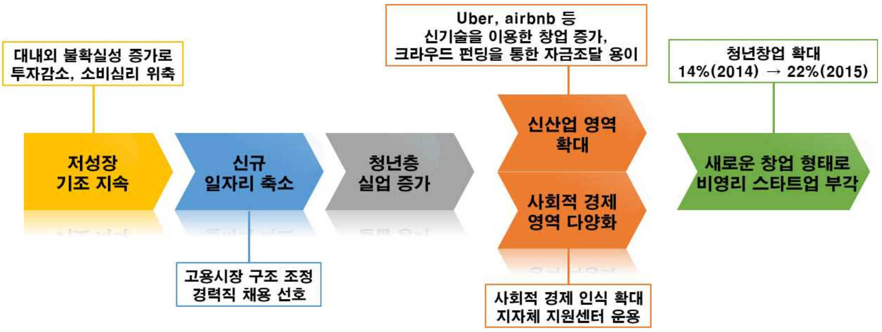
청년실업률, 다양한 정책 불구 5년간 계속 늘어 2016년 10% 돌파

청년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률은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서울의 청년실업률은 2016년 10.3%로 전국의 청년실업률 9.8%보다 0.5%p 높은 수준이다. 이를 통해 서울의 청년실업은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현실에서 체감하는 청년실업률은 공식통계보다 더 높다. 한 민간연구기관은 2016년 청년들의 체감실업률이 34.2%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것은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사회적경제의 영역 다양화…새 창업 형태로 비영리스타트업이 주목

서울의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의 증가로 투자 감소,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하여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고용시장의 구조 조정과 경력직 채용 선호 현상으로 신규 일자리가 축소되고 있어 청년실업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사업은 확대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는 영역이 다양화되고 있다. 신기술을 이용한 여러 형태의 창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조달로 신산업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사회적경제의 인식 확대와 지자체의 지원센터 운용 등으로 사회적경제 영역은 다양화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새로운 창업의 형태로 비영리스타트업이 부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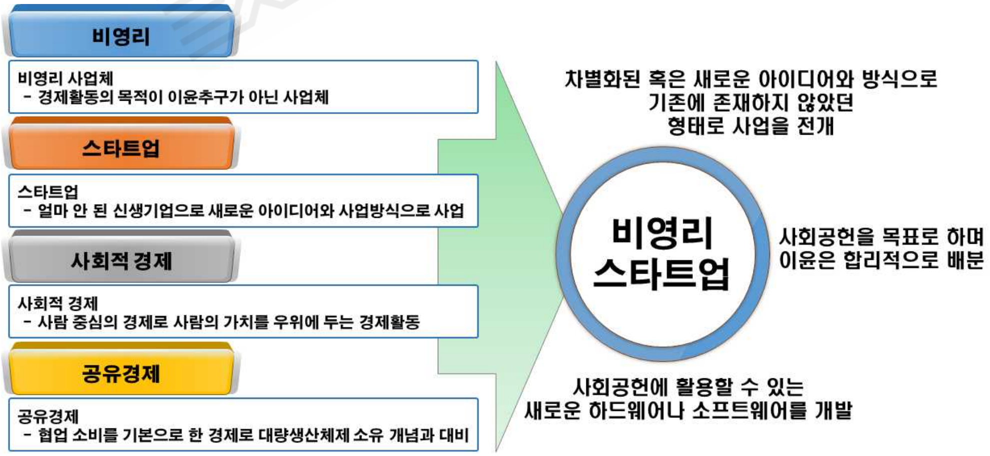
최근의 사회분위기 또한 비영리스타트업에 우호적이다. 사회·경제적인 경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비영리스타트업은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비영리스타트업은 청년일자리의 일부분만 차지하기 때문에 청년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한 완벽한 대안은 될 수 없다. 하지만 비영리스타트업은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림 1] 비영리스타트업 태동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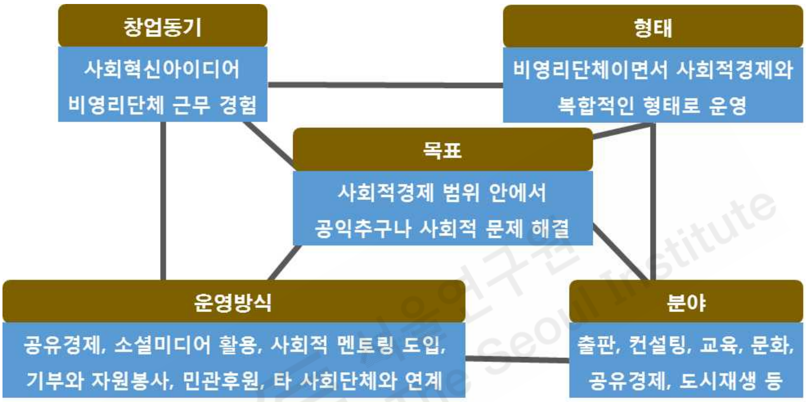
비영리스타트업은 사회공헌도, 청년고용, 성장세가 높은 신생기업

비영리스타트업은 비영리(nonprofit)와 스타트업(startup)의 합성어로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사업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특징이다. 비영리스타트업의 주요 특징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사업방식으로 사회공헌도가 높고, 청년고용 및 성장세가 높은 비영리단체 및 사업체로 사회적경제의 틀에서 생겨나는 신생기업이다. 재원은 주로 기부금 또는 현금출자의 형태로 조달하여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술발전과 사회적 인식의 전환으로 최근 새로운 창업형태인 비영리스타트업이 부각되고 있다.



[그림 2] 비영리 스타트업 개념도

비영리스타트업의 설립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다. 비영리스타트업의 목표가 비영리단체와 사회적경제 분야와 마찬가지로 사회공헌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비영리스타트업은 전통적인 비영리분야인 종교, 돌봄, 자선 등의 분야뿐만 아니라 출판, 컨설팅, 공유경제, 도시재생, 교육, 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의 목적사업을 시행한다. 전통적인 비영리분야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사업을 전개해나가기도 하지만,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기도 한다. 조직은 비영리단체와 사회적경제(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의 복합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기금을 모금하는 데 있어서 크라우드 펀딩과 같은 신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그림 3] 비영리스타트업의 운영 방식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는 총 2,000여개… 핵심 키워드는 문화·교육

서울시 2,000여 개 비영리민간단체의 주된 사업을 참고하여 ① 문화·예술, ② 교육·컨설팅, ③ 복지·인권, ④ 제조·생산·유통, ⑤ IT, ⑥ 건축·공간, ⑦ 네트워크·지원, ⑧ 환경·생태·에너지, ⑨ 미디어, ⑩ 기타 등 10가지로 사업유형을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복지·인권이 646개(32.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네트워크·지원 432개(21.4%), 문화·예술 424개(21.0%)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그 외에 교육·컨설팅이 240개(11.9%), 환경·생태·에너지가 187개(9.3%)로 나타났으며, 건축·공간(31개, 1.5%), 미디어(27개, 1.3%), 제조·생산·유통(15개, 0.8%), IT(13개, 0.7%), 기타(2개, 0.1%) 등의 순으로 비중이 낮았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에 널리 사용되는 버즈(Buzz) 분석 결과 가장 눈에 띄는 키워드는 문화와 교육이었다. 이러한 키워드 분석은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의 주된 사업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데 유용하다. 문화와 교육은 출현 빈도 수가 500회 이상이었다. 그 외에 청소년 416회, 연구 359회, 장애인 347회, 활동 336회 등의 단어가 많이 나타났다. 그 외에도 사회(297회), 개발(251회), 지원(248회), 프로그램(232회), 지역(218회), 시민(205회) 등의 단어가 200회 이상 나타났다. 버즈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는 주로 교육·문화·사회 분야에서 장애인·청소년·시민·지역을 대상으로 연구·지원·개발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시행하거나 활동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 비영리민간단체 목적 및 내용의 버즈 분석 결과

18개 대표 비영리스타트업은 사회적 공익 추구·청년층 고용 많아

현재 비영리스타트업은 태동단계로 기초자료가 부재한 상황으로 조사에 한계가 있다. 비영리스타트업의 형태가 다양한 점도 조사를 어렵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다. 비영리스타트업은 비영리단체나 법인 형태가 주를 이루지만, 주식회사의 형태로 비영리분야의 목적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형태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명확한 분류가 쉽지 않다. 따라서 사업체 선정기준을 먼저 설정하고, 이에 부합되는 성공 및 우수사례를 우선적으로 참고하여 18개의 대표적인 비영리스타트업을 선정하였다.

비영리스타트업은 사회적인 공익을 추구하고 있으며, 기존과 차별화된 비영리 관련 사업아이템을 활용하고 있다. 창업 후 성장세가 크며, 영업은 비교적으로 안정적이다. 고용창출효과가 크며, 특히 청년층의 고용이 많았다. 그리고 대부분 비영리민간단체나 비영리사단법인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일부 비영리스타트업은 주식회사의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비즈니스의 형태와 사업내용을 고려하면 비영리스타트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림 5] 서울시 주요 비영리스타트업 분포

비영리스타트업 대표자들 “청년에 괜찮은 일자리… 자생력갖게 지원”

서울의 주요 비영리스타트업 중 5곳(열린옷장, 점프, 비영리IT지원센터, 진저티프로젝트, FLRY)의 창업경험이 있는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열린옷장은 기부 받은 정장을 대여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총 인원 12명 중 청년은 11명이다. 점프는 저소득층 청소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총 인원 12~14명 중에 청년은 11명이다. 진저티프로젝트는 비영리분야의 연구와 비영리에서 근무하는 인재 교육, 비영리관련 출판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총 인원 7명 중 청년은 6명이다. 비영리IT지원센터는 비영리단체의 IT분야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총인원 10명 중 청년은 5명이다. FLRY는 결혼식에서 사용한 꽃을 재활용하여 호스피스 병동, 위안부 할머니 등에게 기부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총인원 3명 중 청년은 3명이다.

대표자들은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여 비영리스타트업을 창업하였다. 창업 당시에는 공간확보, 생계문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표준화되지 않은 제도, 조언 받을 곳의 부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다. 창업 시에 받은 지원은 응모 사업,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공간 지원, 개인투자 등을 받았다고 하였다.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에서 받은 지원은 사업의 정착과정에서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기존 비영리단체의 운영방식과 제도적 문제점 등이 비영리스타트업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부 애로사항은 있지만, 비영리스타트업은 청년들에게 괜찮은 일자리라고 평가하였다. 우선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가 사회공헌이며, 청년 직원들은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청년들은 자신의 가치와 연결된 일을 함으로써 느끼는 만족감으로 인해 직업만족도 또한 높다. 비영리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좋은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풍부하지 않은 인재풀, 불합리한 관행에 적응하기 힘든 현실, 비영리분야는 봉사활동이라는 사회적 인식, 낮은 임금수준, 적은 일자리 수, 생소한 분야라는 애로사항과 한계가 존재한다.

창업 당시 일부 어려움은 있었으며, 공공의 지원은 어느 정도 도움

○ 어려웠던 점: 공간 확보, 생계 문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표준화되지 않은 제도, 조언 받을 곳의 부재 등
○ 받은 지원: 응모 사업,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공간 지원, 개인투자 등

청년들에게 괜찮은 일자리가 될 수 있으나 고용에 있어서 애로사항과 한계가 존재

○ 긍정적 부분: 내재된 가치, 높은 만족도, 사업을 통한 고용 창출 가능성, 주도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 자신의 가치와 연결된 일을 함으로써 느끼는 만족감, 사회적 사명감 달성
○ 애로사항과 한계: 적은 인재 풀, 낮은 임금수준, 사회적 인식(비영리=봉사=저임금), 관행에 적응하기 힘든 현실, 작은 조직으로서 청년들에게 줄 수 있는 성장 경험에 한계, 생소한 분야

비영리 조직의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

○ 비영리스타트업이 살아남아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비영리 조직들의 협업 환경 조성
○ 비영리 조직의 현황과 문제들을 진단하는 기초적인 연구 사업
○ 단기적인 성과 지향적 지원보다는 비영리스타트업의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는 장기적인 지원으로 패러다임 전환

서울시가 지니고 있는 역량을 발휘하여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

○ 공공 입찰에 있어서 영리기업과 차별화할 수 있는 기준 마련
○ 역량강화와 측면 지원도 중요하지만 직접 지원의 비중을 너무 낮추면 안됨
○ 서울시가 지니고 있는 장점을 활용하여 다른 지역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정책 개발에 대한 고민 필요

[그림 6] 인터뷰 주요 결과 종합

비영리스타트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비영리조직의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비영리조직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업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비영리조직의 현황과 문제들을 진단하는 기초적인 연구 사업이 시행되어야 하며, 단기적인 성과지향적 지원보다는 장기적인 지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다. 또한 서울시가 지니고 있는 역량을 발휘하면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서울시가 지니고 있는 장점은 청년 인재가 많다는 점이다. 반면 지역에서는 청년 거주자가 부족해 문제가 되고 있다. 공공입찰에 있어서 현재 동일한 기준으로 경쟁을 하게 되면 비영리분야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받게 된다. 그리고 역량강화와 측면 지원도 중요하지만 직접지원의 비중도 너무 낮추면 안 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비영리스타트업 재직 청년들 “사회공헌 등 내적 동기로 현직장 선택”

서울시 소재 비영리스타트업에 재직 중인 만 39세 이하 44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생애주기별 분류에 따르면 30대를 청년기로 분류하지 않지만, 여기서는 20대와 30대를 청년층으로 정의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구조는 크게 네 부분이며 일반 현황, 일자리 현황, 일자리 만족도, 장래 비전 및 바라는 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자리 선택은 자발적이었으며, 이전 직장 경험이 있는 경우도 다수

- ○ 비영리분야의 일자리를 선택한 동기는 ‘자아실현을 위해서’, ‘사회공헌을 위한 사명감’이 높은 응답
- ○ 입사경로는 채용시험 합격 등 공채와 회사의 특별채용·해당 직장 근무자 추천의 비중이 비슷
- ○ 취업 전 사회적경제 관련 프로그램 또는 교육의 경험이 없는 경우가 다수
- ○ 이전 직장 경험이 있는 경우가 다수였으며, 그 중 65% 정도는 정규직 근로자

급여와 고용 안정성에 대한 부분은 불만족

- ○ 자신의 적성·흥미, 개인 발전 가능성, 업무의 난이도, 직무수행 자율성 등은 높은 만족도
- ○ 급여와 고용 안정성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
- ○ 기타 의견에서도 급여에 대한 부분, 처우에 관한 문제, 고용안정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제기

미래에 대한 전망은 밝은 편이나, 현재의 지원과 청년일자리에 대해서는 보통 정도로 생각

- ○ 사업전망은 희망적이고, 추후 업계의 사회적 평판은 좋아질 것으로 예상
- ○ 향후 계획은 비영리 분야에서 계속 근무(계속 근무, 동종 분야로 이직 등)의 비중이 높은 편
- ○ 현재 서울시의 비영리 및 사회적경제 분야의 지원은 약간 긍정적이나 보통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
- ○ 비영리분야 일자리의 청년 취업에 대해서는 보통

[그림 7] 설문조사 주요 결과 종합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비영리스타트업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해당 분야가 괜찮은 청년일자리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청년들은 높은 급여와 좋은 근무환경보다는 자아실현과 사회공헌 등 내적 동기로 인해 현재의 직장을 선택하였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비영리스타트업에 근무하고 있는 청년들은 현재의 직장에 취업하기 전에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의 비영리스타트업에 일하는 청년근로자는 월 200만 원 이하의 월급(초과근무수당 제외)을 받고 있었다. 급여, 업무량, 근로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비영리스타트업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일자리였으며, 직무 수행의 자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었다. 또한 미래의 사업전망도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추후 업계의 사회적 평판도 점점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동종분야에 남아서 일을 하고 싶다는 응답이 높다. 비영리스타트업의 일자리는 청년들에게 괜찮은 일자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다만 비영리분야가 더욱 발전해야하고 청년일자리를 위해서는 보다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비영리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비영리스타트업이 자생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사회적인 지지와 지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 근로조건의 향상과 공공의 제도적 지원, 청년들이 일할 수 있기 위한 다양한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비영리분야 산업생태계가 조성돼야 비영리스타트업이 활성화 가능

비영리스타트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분야의 진단이 필요하다. 큰 틀에서 비영리스타트업은 비영리분야의 일부분이다. 현재 비영리분야의 산업생태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평가받기 때문에 비영리분야의 생태계가 조성된다면 비영리스타트업도 활성화될 것이다. 비영리분야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비영리스타트업을 위한 관련 자료의 구축, 중간지원조직 운영, 유사단체와의 네트워크 지원 등이 필요하다. 또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비영리스타트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해나가야 한다. 비영리단체가 공공입찰에 참여해도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공인된 회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공인된 회계기준은 비영리스타트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비영리분야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간담회비, 식대 등 행사 진행 시 소요되는 비용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기부금 제도의 기본방향을 '규제'에서 '허용'으로 관련 법규를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다. 기부금 제도의 기본

방향이 변경된다면 비영리스타트업이 기부금을 모집하기가 보다 수월해져서 사업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비영리스타트업의 활성화를 위해 창업 및 운영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전용공간을 지원하고 공모사업의 채널을 확대하며 공공입찰 기준을 현실화하는 등의 창업 및 운영 지원도 함께해야 한다. 공공지원,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대기업의 사회공헌 사업 등을 통해 비영리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채널을 다양하게 한다면 자금조달이 한층 수월해질 것이다.

[그림 8] 비영리스타트업 청년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청년 실업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비영리스타트업의 청년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비영리스타트업의 사업 환경이 개선된다면 창업이 많아질 것이며, 이는 자연스럽게 비영리스타트업의 청년일자리 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자연스러운 증가 외에도 뉴딜일자리, 단기적 공공근로 사업 등을 비영리스타트업에도 확대하여 적용하는 등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청년일자리를 확대해나가야 한다. 또한 창업 초기인 비영리스타트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우수사업체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검토해봐야 한다. 비영리스타트업에서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일자리창출 못지않게 중요하다. 정규직 채용 시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직접지원사업의 확대 등을 통해 비영리스타트업의 괜찮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해당 일자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안정적인 수익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직접사업을 늘리는 노력도 필요하다. 비영리스타트업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시키기 위해서 창업 및 운영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우수사업체(단체) 발굴, 취업박람회 개최, 인재풀 확보 및 취업창구 연계 등을 통해 비영리스타트업의 창업 및 취업에 대해서 지원해야 할 것이

다. 위키서울과 같은 아이디어 대회를 통해 우수사업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외에도 서울시NPO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비영리스타트업을 발굴하려는 노력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 ‘청년허브’, ‘서울잡스’ 등 기존의 서울시 청년조직을 활용하여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비영리스타트업의 인재풀과 취업 창구를 직접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